안녕하세요. 저는 웅지세무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4월초 학교에서 강의중 고려대학교 부속 사이버강의라는 곳에서 오신 분들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설명은 분명 고려대학교 부속 이라고 하였으며, 카드와 샘플 시디를 관심있는 분들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받았구요. 말씀하시길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고 샘플을 본후 결재를 하라하셨습니다. 저는 실업계를 나온학생으로써 이설명에 매우 혹해서 시디와 카드를 받아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카드가 샘플카드이며 돈을 지불해야지만 모든 강의를 볼수있는 카드인줄 알았습니다. 물론 오신분들의 설명도 그러했구요. 그러나 몇 개월동안 계속 등록금을 납입하라는 문자와 전화에 시달렸으며, 저는 영문도 모른체 무시하였습니다. 솔직히 스팸 전화,문자인줄 알았거든요. 아이디도 현재 탈퇴한 상황이며 당사의 강의는 맨처음 가입시 샘플영상 한 개를 클릭하여 열어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8월 31일 집으로 우편이 도착해있더군요, 최종납입서였습니다. 31일까지 납부를 하지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니요, 우편도달일은 8월 20일 가량이였지만 대학기숙사 생활을 하는지라 8월 31일에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저는 당사의 어떠한 제품도 구입한적이 없으며, 분명 그분들의 설명은 써보고 구입하라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카드와 시디를 반납하지 않은것이겠지요, 이점에서는 뭐라 말씀드릴 일이없습니다. 샘플시디와 카드인줄알고 있었거든요, 이에 저는 이 계약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일을 발생시킨 웅지세무대학 산학협력처와 담당교수님들, 소비자원에 제가 잘못한 일인지, 당사에서 잘못한 일인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8월 31일 납부기한을 9월 30일 까지로 연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곳에 **자문을 구하여 제가 잘못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청구하신 금액 150,500원을 9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두경**

**010-5223-8596**